

與 '4표 이탈' 단일대오 미세균열... 커지는 '김건희 리스크'

쌍특검 재표결 기권·무효 각 1표·2명 찬성 가능성... 예상 밖 이탈 당혹 野 재발의 예고 속 여론 악화 고심... 당내 김여사 대국민 사과 요구 확산

여권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일단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예상 밖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 여론 동향에 따라 여론의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열린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각각 나왔다.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명이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반대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결과는 반대 104표에 그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기권·무효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에서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이 중 2명은 찬성표를 던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여당 의원 108명 단일대오에 일단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 셈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부는 '부결선 사수'에 의미를 부여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이탈표 발생의 파장을 두고 내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법안들) 부결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일대오는 확고히 유지되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기명 표결로 누가 찬성 또는 기권·무효표를 던진 것인지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친한계에서는 "경고성 이탈이라고 봐야 한다. 특단의 조치를 하

리는 주문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총공세에 나선 뒤 다음 달인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검찰이 명목뿐 수사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여론 악화와 맞물려 특검법을 방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대표가 재발의를 가정한 질문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도 이런 복잡한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와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 등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김 여사 사과를 공개 촉구했던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김 여사 문제는 심각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나경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사과에 관해 "이제 한 번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며 "시기나 방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확하게 사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한계 일부에선 여기서 더 나아가 사법 절차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특검법을 방어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 친한계 인사는 "진짜 해법은 정당한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고, 그 출발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금정구청장' 야권 단일 후보에 민주당 김경지

혁신당, 호남 교두보 마련 영광 재선거 사활...민주당과 수싸움 치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동상이몽'의 수싸움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표면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같은 깃발을 들었지만, 야권 내 입지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경쟁에 나선 형국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선거 지역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다. 야권에서는 부산 금정 후보 단일화와 맞물려 영광 재선거 구도를 둘러싸고 양당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민주당과 혁신당은 6일 부산 금정 단일 후보를 확정했다. 양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

화했다. 민주당으로선 현재 부산 금정과 호남 선거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권 텃밭인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서 이긴다면 민주당은 향후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 등을 발판으로 정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야권 내 입지도 확실하게 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민주당은 영광·곡성군수 등 호남 재선거 2곳도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는 기류다. 한곳이라도 패배하면 내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혁신당에도 이번 재보선은 절실하다.

지역구 의원 없이 비례대표 12석만 가진 혁신당은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호남에 교두보를 확보할 경우 제2야당으로서 위상을 키울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혁신당은 영광군수 재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혁신당 장현 후보와 민주당 장세일 후보, 진보당 이석하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야권 일각에서는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된 만큼 혁신당이 "영광 한 곳에서만큼은 혁신당을 뺏아달라"는 구호로 지역 표심을 파고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서로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우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연히 당이 다른 만큼 앞으로 정치적 계산이 다른 '동상이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동훈, 민주 금투세 결정 지도부 위임 비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데 대해 "그게 뭐냐. 계속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부산 남산성당에서 10·16 금정구청

장 보궐선거 지원 활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는 않음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아니고 금정을 위해서 누가 할 수 있는지, 누가 실현할 수 있는지 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정진욱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유턴법' 유명무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와 정착을 돕는 이른바 '유턴법'이 제정 10년을 넘어섰지만, 지원 정책을 알고 있는 기업이 적고 국내로 복귀한 기업도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해외진출기업 경영 현황 및 국내복귀 수요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 중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지원 제도를 알게 된 경로는 언론 기사(36.6%), KOTRA 홈페이지·뉴스레터(26.9%), 정부부처와 지자체 안내(21.5%) 등 순이었다. 지원 제도 만족도는 만족(15.1%), 불만족(10.4%), 보통(75.5%)으로 응답했다.

국회는 주요 경쟁국보다 앞선 2013년 8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토지 매입과 설비 투자 비용 등에 대한 국비·지방비를 매칭하고 '구조조정 컨설팅' 제도를 해외사업장 구조조정과 관련한 컨설팅 경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지원 제도의 내용과 혜택에 따라 국내 투자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28.9%에 달했다. 해외 진출 기업이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뿐 국내 복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게 정진욱 의원의 설명이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달,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형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